

# 민희진, 평사원서 대표 우뚝... 걸그룹 '뉴진스' 진두지휘

(어도어(ADOR)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 인턴트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평사원으로 입사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동기이사에 오르는 등 K팝 산업을 주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국내외, 장르 불문 다양한 곡을 즐겨 들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전공을 살려 디자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지만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 연예계에 뛰어 들었다.

SM 소속 가수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 등 유명 아이돌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패션, 앨범 비주얼 등을 담당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소녀시대의 콘셉트 기획을 시작으로 f(x), 레드벨벳 등 여러 아이돌 가수에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부여하며 비주얼 디렉팅과 콘셉트라는 키워드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각인



엘빌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0-2

시작했다. 특히 비디오 테이프 모양의 실물 음반부터 아트웍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엮혔던 f(x)의 정규 2집 '핑크 테이프'는 역작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 그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제 기본 본업이 그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항상 그림을 떠올린다"며 앨범 탄생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사이니를 통해 컨셉티 브라는 개념, 엑소의 심벌과 세계관 구현 프로젝트도 주도했다.

2018년 SM을 퇴사하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새 사명 하이브의 브랜드 디자인 총괄을 맡았으며 공간디자인과 신사옥 설계까지 적극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All Doors One Room)의 머리글자의 대표를 맡아 민희진 걸그룹 제작에 힘을 쏟았다.

그렇게 탄생한 뉴진스는 프로듀서로 참여한 민 대표가 멤버 선발부터 기획, 음악, 제작, 안무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첫 걸그룹이다. 멤버는 민지·하나·다니엘·헤린·헤인으로 총 다섯 명이다. 그는 이자리스님 팔을 추구하는 동시에 과장 없는 자연스러운 사운드 엔지니어링으로 멤버와 본연의 목소리를 살리는 프로듀싱을 진행했다.

앞서 2019년부터 진행해온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에서 발탁한 신예들로 그룹 뉴진스(NewJeans)를 결성한 바 있다. 데뷔곡부터 음반 콘셉트 등 심혈을 기울인 뉴진스는 올해 8월 1일 데뷔 앨범 음원을 공개한지 8일 만에 빌보드 순위에 진입했다.

데뷔 앨범에는 '어텐션' '하이프 보이(Hype Boy)' '쿠키(Cookie)' '허트(Hurt)' 등 4곡이 수록됐으며 이 중 3개 트랙이 트립플 타이틀곡으로 주목받았다.

민 대표는 뉴진스라는 팀 이름에 대해 "대중음악은 일상과 초근접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마치 매일 입는 옷과 같다. 특히 진(Jean)은 시대를 불문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아 온 아이템이다. 뉴진스에는 매일 찾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와 뉴진스(New Genes 새로운 유전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대표와 뉴진스는 14일 방송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진스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유재석이 민 대표에게 뉴진스의 인기를 예상했냐고 묻자 "저는 사실 예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압감이 크긴 했다. 내가 멤버들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에 (멤버들의) 부모님들과도 얘기를 아주 많이 했다"고 준비 과정을 돌아봤다. "뉴진스를

보면 출산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면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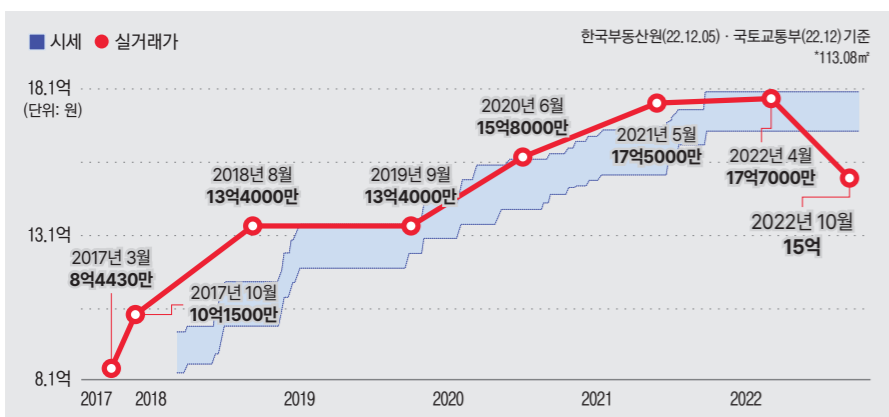
또 "7월 22일 데뷔해서 8-9월 3분기 정산했는데 매우 감사하게도 음원, 음반 판매가 잘돼서 멤버들에게 정산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민희진 걸그룹 뉴진스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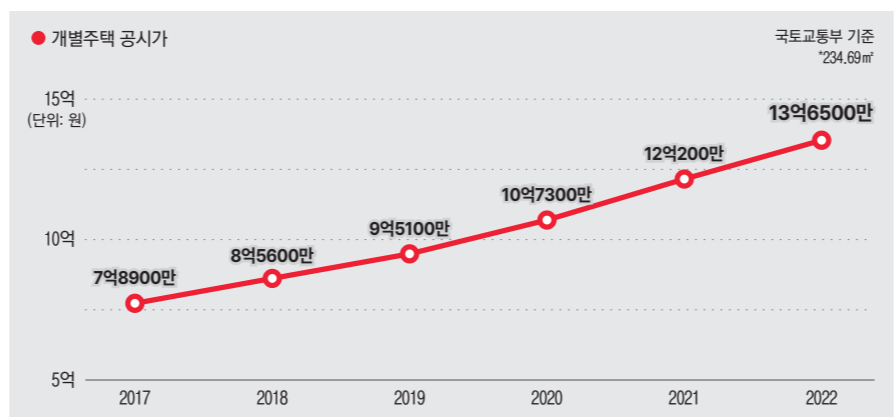
## 공덕파크자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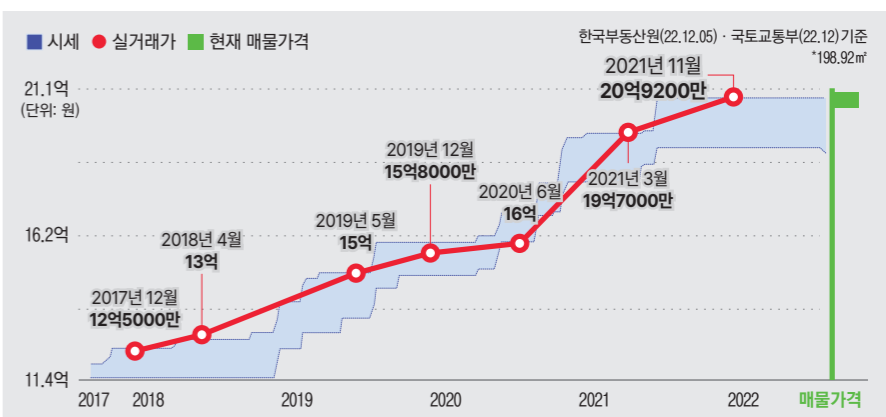
## 단독주택

서울 마포구 상암동



## 펜트하우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72



## 항범석

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부사장

항범석 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부사장은 북평고를 나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상품총괄



대표와 동시에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당시 전무가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약 40년 만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2월 롯데쇼핑의 쇼핑물 개발 사업 법인인 롯데인천타운의 신임 대표를 맡았다가 11월 물러났다.



## 박지연

전 코디네이터

박지연은 KBS2 '개그 콘서트'의 인기코너 '고음블'로 주가를 올리던 개그맨 박준형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다가 2008년 3월 12세 연상



사자 대가에 이름을 올렸다. 의류 쇼핑물 '옷집'을 운영하며 직접 피팅모델로 나서는 등 사업가로서 열정도 펼쳐 보였으며 올해 5월에는 떡볶이 사업을 시작했다. 브랜드명은 '요니네 떡볶이'다. 요식 사업에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건 제품으로 흡소핑에도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 김정민

헝가수 겸 배우

김정민(본명 김정수)은 1994년 1집 음반 '그대 사랑안에 머물러'로 정식 데뷔했다. 대중적인 멜로디의 발라드를 부르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와 스크래치 창법에 대중이 매료됐다. 특히 2집에 수록된 곡 '슬픈 연약식'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 곡으로 각종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후속 곡인 '마지막 약속' 또한 1위에 오르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해 HOT가 데뷔한 것은 물론 쟁쟁한 가수가 다수 포진한 점을 고려하면 김정민이 대중가요 전성기



의 한 축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가수 활동을 이어가다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아리', 영화 '언니가 간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드라마 대표작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됐던 KBS2 '가족끼리 왜 이래'가 있다. 당시 준수한 연기 실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뮤지컬에도 진출해 '맘마미야!' 등에 출연했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경의선 운천역 17일 개통...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경기도 파주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경기도 파주시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의선 운천역을 17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04년 임시 승강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운천역은 경의선 전철화 이후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수요 증대,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역 신설사업으로 전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파주시로부터 운천역 신설사업을 수탁받아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경의중앙선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지상 1층, 연면적 429㎡ 규모의 역사를 완공했다.

두 역 사이를 왕복 운행하는 셔틀전철은 평일 2회, 주말에는 4회 운행할 예정이며 셔틀전철을 통해 문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중앙선 전철로 환승할 수 있다.

운천역은 운천(雲川)이라는 지명을 고려해 구름과 샘을 은유한 구조물로 형상화하고 인공 마감재를 최소화하여 주변



경의선 운천역.

코레일

경관과 조화롭게 디자인했으며 주차장에서 대합실을 거치지 않고 승강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구조로 미관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역사로 맞이방을 지나 타는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고령층과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완만한 경사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행사와 공연 등을 위한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철도 이용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경의선 운천역은 지역주민의 갈현한 기대와 염원이 담긴 철도역사다"며 "그동안 철도교통 서비스에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최고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 충청권,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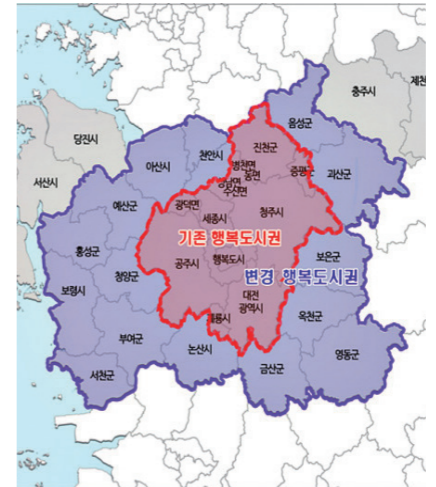
대전시·세종시·충청남북도

국가균형발전의 새 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확정된 광역도시계획 고시를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관보에, 대전·세종시·충청남·북도는 공보에 게시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구역 틀을 뛰어 넘어 변화된 여건에 맞춰 충청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상생발전은 도모하고자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을 목표로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의 수립기준에 따라 △목표와 전략 △주요지표 △공공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부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권 행복도시권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자율적 협력권역을 형성하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 간 연계 강화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충청권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면적 1만2193㎢)으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

로 기대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수립 협약체결 이후 4년간 추진해온 협의의 성과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과정에서 시도 의견,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어려운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행복청 및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초광역 협력, 즉 성공적인 초광역도시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의 행복도시시계획국장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행복도시권이 국토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도시발전 효과를 충청권 전역에 확산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